



## 터 키

### 양계생산능가, 닭발로 이익 창출

터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닭고기 회사들이 최근 닭발 수출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터키에서는 일반적으로 닭발을 먹지 않고, 이것을 부산물이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수출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터키는 닭고기 전체 수출액 1,050억 불 중 닭발 1,700만 불을 수출했으며, 중국에 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수출 관계자는 “터키에서는 닭발을 폐기물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닭발을 극동지방으로 수출함으로써 오히려 양계농가에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 아일랜드

### 닭고기 부산물로 전기 발생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에 짓고 있는 새 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닭고기 부산물과 사료로 쓰이는 골분이 이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전소는 Moy Park와 O'Kane's chickens가 약 1억 3400만파운드(한화 약 2,095억원)를 공동 출자하여 Glenfarm Holdings를 설립하여 이뤄진 것이다.

발전소는 Rose Energy라 명명하고, Antrim주 Glenavy 인근 발전기구에 등록, 허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Rose Energy에 따르면 농업 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북아일랜드 에너지 조약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닭고기 부산물을 이용해 30메가와트의 전기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 호 주

### GM곡물 도입으로 최대 9억\$ 이상 이익발생

ABARE는 3월말 GM곡물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호주가 GM곡물을 도입할 경우 농업계 전체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9억1,200호주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시산했다.

그리고 ABARE에서는 GM곡물의 재배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금후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GM곡물 재배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우위성이 한 단계 올라 호주에서의 GM곡물 도입 지연은 결과적으로 곡물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했다.

## 브라질

### 닭고기 수출 경쟁 치열

브라질과 미국이 세계 닭고기 수출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콩을 통해 35만7천 톤을 중국으로 수출했던 브라질이 금년 15만 톤의 닭고기를 중국으로 직접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브라질은 중국 수출을 위해 24개 공장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나는 선적들은 상하이를 통해 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1년에 약 100만 톤을 수입하는 나라로 브라질과 미국이 겨루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중 브라질은 20만 톤, 미국은 60만 톤의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브라질은 2007년 계육 수출량이 328만 7천 톤으로 2006년 270만 톤에 비해 21% 늘어나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 미 국

### 구운 닭고기, 미국인의 새로운 식습관으로 각광

Weber Grill Watch Survey에 의해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야외 조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계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많은 미국인들이 닭고기를 석쇠에 구워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3 이상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적색육과 닭고기, 야채 등을 구워먹는다고 했고, 석쇠구이를 예년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석쇠구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해 69%였던 것에 반해 올 시즌에는 71%에 달했고, 1주일에 여러 번 이용하는 사람도 지난해 43%였던 것이 올해에는 47%로 조사되면서 미국인들의 석쇠구이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량은행에 기부된 수만개의 계란

뉴욕 웨스턴에 위치한 식량은행(Food Bank)은 지난 3월 13일 36,000개의 계란을 전달받았다. 이는 미국의 두 번째 수확기를 맞아 국가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버팔로 홀트거리의 선창으로 운반되어진 계란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실시되었다.

관계자는 식량창고에 저장된 계란은 지방의 400여개의 지부를 통해 전달된다고 밝혔다.

(출처 : World Poultry, www.poultrysite.com) **양계**